

철도, 인류 생활양식 바꾸고 변혁 이끌었다

철도의 세계사

크리스티안 윌마 지음·배현 옮김

“대륙 횡단 철도 건설에서도 ‘고귀함과 비열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개척 시대 미국의 최악과 최고의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약 2860킬로미터 길이의 선로를 놓은 엄청난 업적이다. 특히 영하 40도까지 근무박질치는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한 1866년에서 이듬해까지 혹독한 겨울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의 공격까지 극복한 것은 피라미드 건설 이래 인간이 이룬 업적 가운데 필적할 만한 것이 없었다.”(본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세상을 뒤바꿔 놓은 것들이 있었다. 페니실린, 전기, 다이내마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한 세기에 걸쳐 세상을 확실하게 변모시킨 것이 있다. 바로 철도다. 철도는 19세기 세계의 풍경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바꿨다. 대규모 제조업과 산업혁명은 철도가 있어 가능했다.

산업 분야뿐 아니라 개인의 일상도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다. 휴가의 패턴, 우편 주문 등도 철도 탄생과 맞물려 도래한 변화다. 철도는 어떻게 인류의 생활양식을 바꿨으며 변혁을 견인했을까. 철도의 기원에서 현대까지의 발전상을 망라한 책이 발간됐다. 세계적인 교통 운수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윌마가 펴낸 ‘철도의 세계사’는 철도 역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책은 철도의 기원, 유럽 철도망의 발달, 영국 철도 기술 등을 조망한다. 또한 인도와 아프리카, 중



국에서 이뤄낸 대규모 철도망, 러시아와 미국 등에 놓인 장대한 횡단 철도 등도 다룬다. 저자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철도가 바꾼 시대 풍경이다. 사실상 철도는 인류 모두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관광산업의 급성장은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게 되면서 비롯된 결과다. 여기에 식료품 운송이 빨라지면서 기근이 준데다 장거리 통근이 가능해 도시화가 진척됐다.

저자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하지 않는다. 운송의 발달로 질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철도로 실어 나르는 곡물의 증대로 유럽 전체의 농업이 침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책에는 철도를 만든 이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담겨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최초 철도는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죄수를 동력으로 이용했다. “심지어 부스 사령관은 죄수를 동원해 객차를 끌게 했다. 유형지에서 출발하면 상당히 기뻐했기 때문에 객차를 끄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초기에 이곳을 방문한 스토너 대위는 그 객차를 이렇게 묘사했다. “아주 조용하게 만든 객차는 차체가 매우 낮은 2인승으로 작은 주철 바퀴 네 개가 달려 있다. 객차 양쪽에 죄수들이 잡고 밀 수 있게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다.” 스토너는 불쌍한 죄수들의 모습을 깜짝 놀랐다고 한다.” 1830년부터 1900년대로 넘어오는 시기



리버풀-맨체스터 철도 개통식. 1830년 개통한 이 철도는 증기 기관만 사용하는 복선 철도로 두 대도시를 이은 본격적인 최초의 철도다.

에는 철도 역사상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 때는 리버풀-맨체스터 철도가 개통된 즈음으로 10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도가 놓였다. 짧은 노선이라도 철도를 놓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후 철도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고산지대에까지 뻗게 된다. 알프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을 넘고 강과 호수를 건너고,

사막을 가로질러 시베리아를 횡단한다. 책은 철도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력과 철도 자본가, 지주들의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도 다룬다. 반면 웅장하지만 위험천만한 철도를 놓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다시봄·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제임스 글릭의 타임 트래블 = H.G.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부터 시작된 시간여행과 타임머신이라는 개념이 세상을 얼마나 바꿨는지 보여주는 책이 출간됐다. 과학, 철학, 문학과 다양한 예술 장르가 시간여행을 매개로 어떻게 소통하고 교류했는지 분석하고, 많은 이들을 열광하게 만든 시간여행의 문학적 매력을 ‘카오스’의 저자 제임스 글릭의 재치 있는 글과 함께 파헤친다. <동아시아·2만원>

▲시나트라-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성공과 추락을 그 성격만큼이나 변덕스럽게 오갔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같은 삶을 기록한 국내 유일의 시나트라 평전이 나왔다.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앞서 20세기 최초로 젊은이들이 숭배했던 1세대 아이돌, 요즘 사람들이 소비하는 온갖 가십의 축소판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한 권에 담았다. <유문문화사·2만8000원>

▲공자, 기업가 정신을 말한다 = 이 시대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기업가 정신’의 토대를 공자가 이야기한 4덕(德)과 7인(仁)을 통해 살펴본다. 먼저 기업과 기업가의 의미,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정의내리고, ‘서경’과 ‘논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 속 인물들이 발휘했던 리더십을 둘러보고 이를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기업과 비교해 오늘날의 기업



이 갖춰야 할 자질들을 분석한다. <자의누리·1만7000원>

▲동거 식물 = 피아니스트 김은진이 프랑스 파리에서 ‘살을 이롭게 하는 음악’에 대해 고민하는 동안 썼던 일기장. 저자가 복잡한 삶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지쳤을 때 함께한 무심한 동거인 ‘동거 식물’과의 일상을 남긴 기록이다.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식물을 바라보며, 더불어 살면서도 타인보다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섬세하고 담백한 문장으로 담았다. <새움·1만3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사비성을 지키는 아이들 =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백제 말기, 계백 장군의 아들 바람결과 동무들의 단단한 마음과 용기로 신라-당나라군으로부터 백제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았다. 신라에 화랑이 있었다는 백제에도 나라를 지킨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란 상상을 전제로, 무너지는 암담한 백제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키워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을 일깨워준다. <청어람주니어·1만1000원>

▲동생은 내 부하야 = 형제자매는 특하면 원수 마냥 다투게 마련이다. 동생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던 형이 동생을 ‘부하’로 만드는 나름의 전략을 세우지만, 결국 부하로 부릴수록 자기 할 일만 더 늘어남은 사실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형제애가 커져 가는 모습을 그렸다. ‘제4회 앤서니 브라운&한나 바르틀린 그림책 공모전’에서 입상한 박나라 작가가 글과 그림을 맡았다. <씨드북·1만2000원>

▲나는 에벌레랑 잤습니다 = 자연 놀이터에서 에벌레와 함께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는 아이의 행복한 상상을 담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동시를 매끄럽고 섬세한 김슬기 화가의 수채화 그림과 함께 담았다. 상상과 현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아이의 시선으로 자연 곳곳을 관찰하는 이야기를 담아 상상력과 호기심을 채워준다. <바우술·1만2000원>



명사 58인이 들려주는 ‘헤세와 나’ 이야기

내 삶에 스며든 헤세

강은교 외 지음

“열 다섯, 외롭고 가난한 소년의 가슴에 어느 날 헤세가 걸어들었다. 헤세를 읽으며 보낸 그 겨울밤의 맑고 시원 바람 소리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다.” 박노해 시인의 말에 등장하는 것처럼, 청소년 시절 헤르만 헤세(1877-1962)의 소설 한 두권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읽으며 두 주인공의 삶속에서 함께 허우적 대고 ‘수레바퀴 아래서’, ‘시달라타’, ‘유리알 유희’ 등을 읽으며 밤을 새우기도 했을 거다.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는 특



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작가다. 그 중에서도 ‘데미안’은 많은 청소년들의 필독서였다. 싱클레어의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데미안을 만나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사스다”라는 구절을 매모해 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2016년 발매한 두번째 앨범 ‘Wings’의 타이틀곡 ‘피 땀 눈물’ 뮤직비디오 제작 당시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데미안’ 출간 100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내 삶에 스며든 헤세’는 사회명사 58인이 들려주는 ‘헤세와 나’의 이야기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영화평론가 전찬일(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이 기획한 책은 문인, 종교인, 학자, 경제계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들이 자신이 읽은 ‘데미안’을 비롯해, 헤세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삶이 어떻게 변해 온 과정 등을 풀어냈다. 강은교 시인은 ‘데미안’에 등장하는 신비의 새 ‘아브라사스’를 찾아 알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며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는 헤세의 책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고 책임

을 지며, 남을 사랑하고 봉사하여 인류의 평화를 수호하라는 가르침을 준다”고 말한다. 필명 ‘로자’로 알려진 이현우는 헤세의 고향인 독일 칼브 여행기에 버무린 ‘수레바퀴 아래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려주며 경제학자 우석훈 역시 이 작품을 기억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세상을 바라보는 ‘감성’의 탄생을 말한다. 그밖에 책에서는 변호사 최재천, 소설가 이외수, 음악평론가 임진모, 사진작가 김홍희, 부산시장 오거돈, 이해인 수녀 등의 글을 만날 수 있다. 또 책에는 한희원 작가와 이영희 작가의 그림 8점이 함께 담겼다. 한 작가는 ‘나의 싱클레어, 나의 데미안’을 통해 젊은 시절을 추억했으며 ‘푸른길’ (2019),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양림 골목길’ (2016) 등을 실었다. <라운더북·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일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